

1960년대 팝 아트 (Pop Art) 의 사조와 패션

김 민 자

덕성여자대학 의상학과

A Relationship between Pop Art and Fashion in the 60's

Minja Kim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College

(1986 1.30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e arts, pop art and fashion in relation to its qualities, motifs, and techniques of graffiti and collage.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fashion magazines such as French Vogue and American Vogue from 1962 through 1970 and Elle from 1980, post cards and reports of costume exhibition in Victoria & Albert museum in London, and newspaper accounts and magazine accounts.

The qualities of pop art were characterized as 1) popular (designed for mass audience), 2) transient (short term solution), 3) expendable (easily forgotten), 4) low cost, 5) mass produced, 6) young (aimed at youth), 7) witty, 8) sexy and erotic, and 9) big business. Pop art was rooted in urban environment.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data for this paper, these special aspects of that environment reflected on fashion in the 60's.

Mary Quant, Zandra Rhodes, Y.S.L., Rudi Gernreich, Paco Rabanne, Pierre Cardin, André Courrèges in the 60's and Castelbajac and Sprouse in the 80's showed pop art dresses, mods fashion inspired by pop artists such as Hamilton, Donaldson, Allen Jones, Jasper Jones, Andy Wahol, and Keith Haring.

New eroticism of fashion was produced by Y.S.L.'s see-through blouse, Courrèges's hipster pants, and Gernreich's bikinis which revealed the navel and the breast.

T-shirts and dresses ornamented with pop idols' faces, pop graffitic motifs, and slogans, as a resistant to society, were begun to popular.

I. 서 어

패션이란 한 시대의 반영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정치·경제·기술의 한 일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대지는 방법으로서 특히 인간의 내적 미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Packer

(1983)는 20세기 이후, Vogue 잡지에 나타난 패션드 로잉은 예술사조의 흐름, 즉 아르 데코(Art Deco), 초 현실주의(Surrealism), 낭만적 표현주의(Romantic Expressionism), 큐비즘(Cubism), 내지는 팝 아트 (Pop Art)등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제시하고 있다¹⁾. Packer는 물이 지붕에서 흐르듯이 한 시대내의 문학가나 시인·화가·음악가·장식가·패션디자이너

는 서로 깊은 연관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저명한 복식사학자 Contini(1977)는 시대적으로 복식의 스타일은 그 시대의 순수 예술과 유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이집트시대나 크레타 문명 혹은 20세기 복식에 나타난 모티브(Motif)와 그 시대의 회화·조각품·기타 미술품에 나타난 모티브의 공통점을 지적하였다²⁾. 영국의 복식사가 Ginsbug는 1900~1939년 패션의 스타일내지는 직물디자인은 아르 데코화가인 León Bakst, Benois, 또는 Dufy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당시 활약하였던 패션디자이너 Chanel, Schiaparelli, Vionnet의 작품세계는 입체파 화가 Picasso나 Matisse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다³⁾. 최근 Farrell-Beck과 Petsch(1984)의 1920년대 많은 활약을 하였던 Chanel과 Vionnet의 작품세계의 색깔과 그 시대의 대가인 Picasso와 Matisse의 작품세계의 색깔의 비교 연구에서 서로의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아가 순수예술에서 추구하는 철학이나 의미는 패션디자인의 진보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Farrell-Beck과 Petsch는 한 시대의 다른 예술분야 즉 건축·가구들의 모티브와 그 시대의 패션모티브와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 중요한 예술사조인 아르누보시대 복식연구인 정홍숙⁵⁾의 논문이 있을 뿐, 필자가 알기에는 20세기 이후 예술사조와 패션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1960년대 유행하였던 정렬적이고 젊은이를 위주로 한 전위 예술 팝 아트 패션페마가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이의 팝 아트의 영향은 비바 모티브(Biba Motif), 낙서·문자 모티브(Graffitic Motif), 쇼크 모티브(Shock Motif), 사이키델릭 모티브(Psychedelic Motif), 비디오 모티브(Video Motif) 등으로 젊은이에게 환호를 받고 있다⁶⁾.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60년대 예술의 한 양식을 이루었던 팝 아트의 특성을 살펴 보고, 패션에 미친 연관성을 분석하므로, 한 시대의 패션의 변천에 원동력일수 있는 예술의 테마가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실제로 패션디자인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며 표현되었는가를 파악하므로 패션디자인 교육에 공헌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최근 전위예술 내지는 민중예술의 중요성(1985년 8월 7일 조선일보 21세기 모임)이 거론되는 요즘 팝 아트와 팝 패션의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대중사회의 한 일원인 인간의 내적 의식세계와 가치관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고자 함이다.

Compton과 Hall(1972)⁷⁾은 문헌연구나 역사적연구란 과거의 기록을 발견·분석하며, 과거의 사건이나 태도에 대한 해석을 내리므로, 현재나 미래의 인간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의 연구방법은 주관적인 오류를 벗어나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Compton과 Hall은 사적 연구의 자료로서 제일차적인 오리지날 문헌이나 유물이며 제 이차적인 자료로는 오리지날 문헌이나 유물에서 발췌된 자료를 지칭하며 제일차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하였다. 제일차적 오리지날 문헌으로서 신문·잡지 등의 기사들로서 주로 서술적이며 가끔은 부정확하나 그날 그날의 생기록으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기록, 고고학적 기록, 예술품이나 문학·음악과 같은 창조적인 물(物)이나, 박물관이나 화랑에 소장되어 있는 복식·직물 그림 등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될 수 있는한 제일차적인 자료로서 1960년대 Vogue잡지나 박물관에 소장된 복식이나 직물에 대한 기록지, 목격자의 기록신문의 기사에 의거하고자 하였다. 특히 필자는 팝 아트의 본 고장인 런던체류시, Victoria and Albert Museum, 현대 미술관(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CA)의 관람은 본 연구의 논제를 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II. 팝 아트(Pop Art)의 본질

팝 아트란 Popular Art(대중 미술)의 준말로써 영국의 미술 평론가 Lawrence Alloway에 의해 명명되었다⁸⁾. 그의 팝 아트를 네오 다다이즘(Neo-Dadaism) 통속주의(Commonism), OK 아트, 팝 컬처(Pop Culture) 등 대부분 우호적인 이미지가 아닌 명칭으로 불리워 지기도 하였다^{9,10)}. 팝 아트란 명칭도 예술성 자체의 의미라기 보다는 광고, 산업디자인, 사진술, 영화 등과 같은 대중 예술매체의 유행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 대하여 언급된 명칭이며, 특히 도시 문화의 단면으로 통속적인 문화나 상업적인 문화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이 용어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현대사회를 명하는 화가나 조각가들의 작품까지도 포함하여 확대 사용하게 된 것이다.

팝 아트의 기원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지만 1950년대 말부터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특징적인 전위 예술 운동으로서 구라파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전위

예술의 근원은 20세기 초 다다이즘(Dadaism)*이나 초현실주의*로 거슬러 올라 갈수 있으며 20세기 이전의 기존적이며 획일적인 전통 사회에 대한 반항내지는 경멸감의 표시로 허무주의·도파·파괴·부조리 등에 관하여 표현한 것이 많았다¹²⁾. 특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전통 예술행위를 파괴하고자하며 이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심미적 균형과 질서를 중시하는 습관적 예술양식에 대한 반항이나,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떤 예술의 형식이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경험을 표현하고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즉 전위예술의 반항이란 기존적인 경험의 인지 및 고양화의 방식에 대한 반항으로 우선적이며 획일적인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한 반항을 뜻하기도 한다.

1. 영국의 팝 아트

전위예술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Marcel Duchamp 은 20세기 이후 기계산업의 발달로 인한 기성품내지는 인위적인 오브제를 그의 화면으로 구성하였는데 1917년 수세식 변기인 샘(Fountain)이나 염소 수염달린 모나리자가 대표작이다. 이 화가는 감각적인 오브제를 단순히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순수한 의지력을 통하여 기성품에 예술의 지위를 부여해 보겠다는 작가의 지적 논리가 구체화된 예^{14),15)}라 하겠다. 이러한 Duchamp의 이념은 1950년대 말부터 영국의 현대미술관(Institute of Contemporary Art)에서 젊은세대 미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그리고 작가로 구성된 인디펜던트 그룹(Independent Group: IG)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Paolozzi, Hamilton, Henderson, Smithson 형제들은 회화, 건축, 디자인에 대한 병론이나 관심을 넘어서서 대량생산된 도시문화, 소비문화 즉 영화, 광고, 공상과학소설, 팝 뮤직 등에 관하여 토론을 개최하곤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상업문화에 대한 혐오감을 넘어서 애



[그림 1] Hamilton: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Wilson의 P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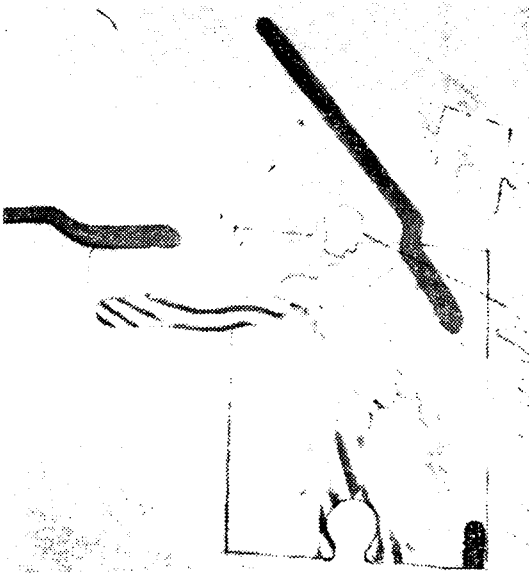
호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소비미술이 순수미술 못지 않게 진지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I·G 회원인 Richard Hamilton^{16),17)}은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작품(그림 1)에서 일종의 대중문화에 대한 애호를 전달하고 있다. 즉 달의 표면으로 꾸며진 천장, 우람한 근육의 남자, 나체의 여자, 재즈가수 엘 존슨의 이미지, 영화의 새로운 기술혁신, 그리고 또한나의 발명품인 녹음기가 콜라주*(Collage)되어 하나의 공간, 환경, 즉 도시문화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유희, 군중, 우주공간, 그리고 유행에 의해 규정되는 작가의 주관적 감각으로서 도시생활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보다 나은 생존조건을 추구하는 대신 그러한 역할을 즐겁게 수행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 준 것이다. 다른 전위예술처럼 ‘사회적 불만’과 ‘기존가치의 전복’¹⁹⁾이 팝 아트의 근저를 이룬다는 것과는 반대로 팝화가들은 지속적이며 통속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1960년대의 산업문화를 받아 들여 이를 자신들의 예술 속에 동화시키려 했음이 더욱 타당하다고 지적한 Alloway의 평가 일치 하는 것이다.

1961년경 영국 왕립미술대학(RCA) 출신들로 구성

*Dadaism: 20세기초 전위 예술로서 회화·조각·문학에 있어서 허무주의적인 독일의 반 미술운동(anti-art movement)→후에 프랑스에서도 일어났다. 세계 제 1차 대전과 그에 따른 사회격변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확립된 규율을 거부하였다. 비합리적이고 무책임, 그리고 미의 모독이 항거와 흥미거리로서 발달 되었다¹¹⁾.

*초현실주의: 1924년과 1929년 프랑스 시인 André Breton의 선언문과 함께 부각된 현대미술과 문학의 한 운동이며 이를 가장 널리 받아 들였던 분야인 회화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된 물체나 인물이 비합리적인 배합으로 짝을 이루는 역설의 미술(art of paradox)이다¹²⁾.

*콜라주(Collage): 플로 불인다는 의미의 프랑스어. 평면적인 표면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종이, 형질 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만든 미술 작품. 이것이 3차원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상블라주(Assemblage)이다¹⁸⁾.



[그림 2] Boshier: 「아이덴티-키트맨 (Identi-Kit Man)」
[Wilson의 Pop]



[그림 3] Donaldson: 「오래 걸리지 않아요」
[Lippard의 Pop]

된 영국의 팝 화가들은 주로 도시에 관심을 갖는 작가들로서, 대중전달 매개체의 이미지와 그라피토(Graffito, 낙서기법), 소비상품 등을 사용하여 그들의 관심을 표현한다²⁰⁾. 이들의 창조행위는 도시의 환경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실제의 사물, 실물과 크기가 같은 모형, 스케치, 글씨, 우주공간, 아동미술과 원시미술 그리고 낙서등을 혼합시켰다. 이들 팝 화가그룹에는 Kitaj, David Hockney, Anthony Donaldson, Allen Jones, Derek Boshier가 참여 하였다. Boshier²¹⁾는 특히 대기의 색이나 우주공간, 인간의 창조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림 2)에서 굵은 치약의 선이나 칫솔로서 소비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며 화면 전면을 우주공간으로 나타내고자 흰색과 푸른색의 강한 브러쉬 타취로서 중간적인 추상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강한 초록색 선의 칫솔 등은 구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Donaldson²²⁾은 (그림 3)에서 시각적 패턴과 이미지의 전달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룸으로써 예묘한 이미지가 표출되고 있다. Allen Jones²³⁾도 그의 「호기심 많은 여인」에서 스타킹과 가터의 강한 대비로 「성기 토텐 이미지」, 혹은 「에로티즘」은 더욱 부각되며 1960년대 청소년 문화, 도시문화의 단면을 풍자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이러한 팝 아트에 나타난 패러디(parody: 풍자적 모방)는 감상자의 반응에 따라 여러 각도의 이미지를 표출하며 작가가 의도한 것과는



[그림 4] Allen Jones: 「호기심 많은 여인」
[Lippard의 Pop]

다르게 전달 될 수 있으므로 추상표현*과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팝 아트는 기존 관념과 반대의 입장에 선 미학의 가치로 발전되었으므로 구상 미술의 부활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현대 미술, 특히 회화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자연과 하등의 관계가 없이 형태(form)와 색채(color)로서 감정을 나타낸다²⁴⁾.



[그림 5] Andy Warhol: 「잭키(Jackie)」
[Lippard의 Pop]

2. 미국의 팝 아트

영국의 팝 아트보다 약간 뒤 늦게 발전된 미국의 팝 아트는 Duchamp의 예술과 인생의 철학에 질게 영향을 받았으며, 산업문화의 애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팝 아트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추상표현주의와 팝 운동의 교량역할을 한 Robert Rauschenberg에 의해 1950년대 말 콜라주의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다다이스트의 콜라주와 다르게 대중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나 일상적인 사진, 자동차나 타이어 등과 같은 소비적 오브제에 대한 사진, 뉴스를 오려 붙이거나 프린팅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의 Jasper Johns, Roy Lichtenstein, Andy Warhol, Claes Oldenburg, Tom Wesselmann, Robert Indiana 등을 팝 화가로 들 수 있다. 뒤 늦게 시작한 미국의 팝 아트가 폭 넓고 즉각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팝 아트의 소비문화 이미지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공통적인 체험이기 때문이라고 Lippard는 지적하고 있다²⁶⁾.

Andy Warhol은 대량생산의 이미지로서 유명상표인 캠벨 수우프나 코카 콜라, 엘비스나 마리린 몬로 혹은 재키와 같은 유명인의 얼굴, 또는 일상적인 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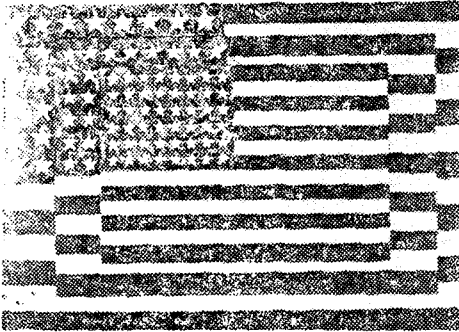
제인 지폐나 신문 등을 실크 스크린의 기법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Warhol은 특히 이러한 오브제를 통하여 현대 도시 생활에서 부각 되는 주제인 명성, 죽음, 폭력, 재앙, 금전, 에로티즘등에 관하여 표출하려고 하였다. Warhol은 처음에는 오브제를 손으로 그렸지만 그 후에는 상업적 테크닉인 실크 스크린 기법을 애용하였다²⁶⁾. (그림 5, 6)

Claes Oldenburg도 역시 Warhol이나 그밖의 팝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에서 오브제를 택하였으며 생활 주변의 익숙한 체험들을 그의 화면을 통하여 표현하려고 하였다. 특히 그의 가격표시가 있는 아크릴 페인팅의 「햄버거, 팝시, 가격」은 미국의 도시생활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Oldenburg는 아트인터내 설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빨강과 흰색의 휘발유 펌프와 깜짝거리는 비스킷광고의 미술을 지지한다…… 나는 쿨 미술, 세븐 업 미술, 펄시 미술, 섹시스트 미술, 수소폭탄 미술, …… 39센트짜리 미술 9.99미술을 지지한다」²⁷⁾. Oldenburg는 끊임없이 상업적이며 소비적인 소재를 택 하였으며 현대성과 동속성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림 8)

Tom Wesselmann의 「위대한 미국의 누드」는 마티스의 당초문양과 화려한 색채를, 모딜리아니의 꾸불꾸불한 선, 그리고 몬드리앙의 엄격한 윤곽선을 결합시킨 작품으로 미국 도시문화의 에로티즘을 풍자화 하고 있다²⁸⁾.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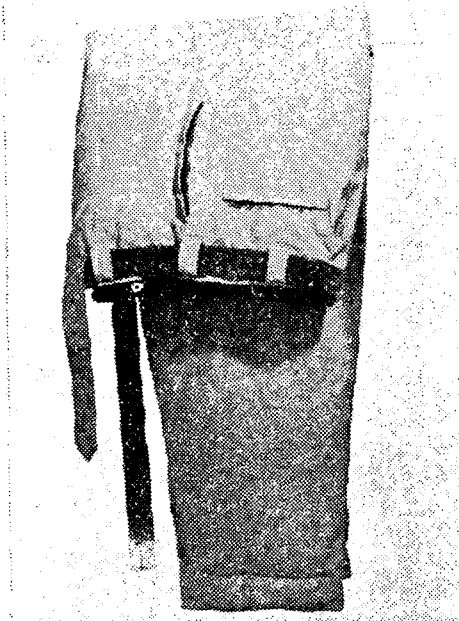
[그림 6] Andy Warhol: 「Marilyn Monroe, 1962」
[Post Card]



[그림 7] Jasper Johns: 「US Flag, 1958」
[Wilson의 Pop]



[그림 9] Tom Wesselmann: 「위대한 미국의 누드
No. 10, 1961」
[Lippard의 Pop]



[그림 8] Claes Oldenburg: 「거대한 푸른바지, 1962」
[Lippard의 Pop]

팝 화가들은 신문 잡지의 삽화나 광고, Hollywood의 영화스타, 흔히 보는 의복이나 음식물, 편엽 사진, 고속도로나 가스 스테이션, 냉장고나 자동차 타이어, 유치하나 화려한 가구, 물질만능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폐 등을 그들의 그림의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신성한 것은 외면당했으며, 싸구려이고 경멸스러운 주제 일수록 환영을 받았으며 유서 깊은 예술 창작 방법도 무시되었다. 일단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는 아무런 손질도 가하지 않는데 팝 화가들은 동의했다. John Russell이 지적하였듯이 “팝이란 저항운동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체제에 대한, 특히 기존 예술에 대한 무산계층의 항거인 것이다”²⁹⁾. 팝 아트의 근저란 反—엘리트적인 태도인 것이다.

Hamilton³⁰⁾의 팝 아트에 대한 고견을 빌린다면, 팝 아트는 1) 대중을 위하여 디자인 된 대중성이 있어야 하며, 2) 짧은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변이성이 있어야 하며, 3) 쉽게 버리는 소모성이 있어야 하며, 4) 저렴한 가격으로, 5) 대량생산적이어야 하며, 6) 생동감이 넘치는 청소년 문화에 근거하며, 7) 재치와 유모가 있으므로 풍자적이어야 하며, 8) Sex와 매력을 중시한 에로티시즘에 있으며, 그리고 9) 상품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Hamilton의 팝 아트의 특성이란 현대 도시생활의 가치관을 단면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팝 아트의 표현 방법으로 Wilson은 추상표 현주의와는 다른 각도로 구상적이며 사실적으로 현 소비사회의 사상이나 오브제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초기 팝 화가들은 플라주의 방법이나 그라피토, 또는 일루저니즘(Illusionism)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Pop Art 시대의 패션

1. 전위예술로서 패션

영국의 복식사학자 James Laver는 1960년대만 턴 에이지의 시대이며 기존의 복식미에서 탈피하려는 전

위패션의 시대로 간주하였다. “스타일은 급속도로 변하였으며 패션계와 의류업계는 이의 변화에 보조를 같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심하던 시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란 기존의 가치에 항거하려는 욕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의 결과인 것이다. 스커트의 길이는 역사상 어느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짧아졌다. 가장 격등했던 1920년대의 스커트도 이보다는 길었고 호순한 스타일이었다. 이러한 붕괴와 항거는 모든 예술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은 팝 아트를 창조하였으며, 영화와 연극은 사회비평을 가하고, 작가는 새로운 스타일로 작품을 구상하고, 음악가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하였다.”³¹⁾ 나아가 Laver는 1950년대는 심미적인 균형과 질서를 중시한 Christian Dior의 ‘New Look’의 세련된 우아미(Sophisticated)의 극치였으나 1960년대는 생동감과 젊음이 넘치는 ‘Young Look’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였다. Ernestine Carter³²⁾는 20세기 패션의 비평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1960년대를 Laver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혁명시대(Revolution)로 간주하였으며 이 혁명의 주된 영감은 팝 아트, 혹은 팝 뮤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영국의 유명한 Tate Gallery에서 Roy Lichtenstein의 그림을 구입한 것을 기점으로, 그리고 비틀즈(Beatles)그룹이나 롤링 스톤(Rolling stone)의 열기는 팝 패션의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1960년대 영국의 패션디자이너 Mary Quant, Biba 상점의 Barbara Hulanicki 그리고 그의 남편 John Stephen, Zandra Rhodes, Jean Muir(Jane and Jane), Tuffin and Foale 등은 지금도 Punk 패션의 중심지인 King's Road, Carnaby거리, Kensington Church거리에서 선풍적인, 전위적인 ‘영 패션’을 팔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영국의 패션은 뉴욕의 젊은이들을 대표시켰으며, 런던의 팝 패션은 팝 아트, 팝 뮤직과 함께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미니 스커트의 대명사로 알려져있는 Mary Quant는 1963년 진저 그룹(Ginger Group)을 설립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하위문화권(Subculture), 전위집단인 Mods 패션에 심취하고 있었다. Mary Quant의 이 Mods 패션은 런던뿐 아니라 전세계 청소년에게 각광을 받았고 막대한 재산을 남게 한 Mary Quant의 작품의 이념은 무엇이었던가? 1973년 London 박물관의 초대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통속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훌륭하고 세련된 심미안이란 나의 작품세계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세속적이며 대중적인 것만이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³³⁾라고. Mary



[그림 10] Mary Quant가 디자인한 Twiggy의 미니 드레스
[David의 Fashion]

Quant의 예술의 세계란 이미 기존의 다듬어진 심미적 균형미가 만족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때껏 창조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승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그녀는 복식에서 혁명을 이룬 셈이다.

모드(Mods)그룹이란 영국 Edwadian 왕조 시대의 복장·풍습을 초 근대적으로 흉내 내거나하여 사회에 초연한 태도를 취하는 틴에이지 집단³⁴⁾으로 팝 패션디자이너들이 많은 영감을 얻은 거리의 패션을 주도해 나갔다. 주로 노동자계층의 자녀들이며 남성들로 주를 이룬 Mods는 1950년대 말 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난 팝 뮤직 가수 Elvis, Beatles, Rolling Stone에 열광적이었고 이들의 패션은 하루 아침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 Elvis의 바렌 힐스터(hipster)스타일의 진 바지와 T-셔츠(그림 11), Vidal Sassoon이 디자인한 기하학적 모양의 머리, 만다린 칼라의 카프탄(Kaftan) 슈츠, 목이 좁은 넥타이, 그리고 앞 부리가 둥근 구두차림의 비틀즈 룩(Beatles Look)(그림 12, 13, 14), Rolling Stone의 가죽점퍼와 긴 부츠는 틴에이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모드 패션(Mods Fashi-

on)으로 유행되었다^{35,39}). 1950년대 이전만 하여도 틴에이지는 소비자층으로 형성될 수 없었다. 2차 대전후 기술문화의 발달로 산업의 문은 확대 되었으며 틴에이지도 산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수입을 벌 수 있게 되었다³⁷). 그들은 부모에게 돌려 받았던 의복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의복을 창조하며, 저렴한 돈으로 유희 오락물, 트위스트 파티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의 상류층, 엘리트층만을 위한 고가·고질의 패션디자인은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과 합성섬유의 발달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하며 소모할 수 있으므로 대중 패션(Mass Fashion), 팝 패션이 탄생된 것이다. 1960년대 팝 패션이란 엘리트나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문화의 향유에 대한 항거로서 패션에서 反 엘리트층, 무산계급 의식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저질이며 유치하며 통속적인 틴에이지들의 Mods, Pop Fashion은 일부 기성인에게 비난과 조소를 받았지만 Mary Quant나 Zandra Rhodes 등의 디자이너는 이 도시환경을 사랑하였으며 자신들의 작품세계에 고양화 시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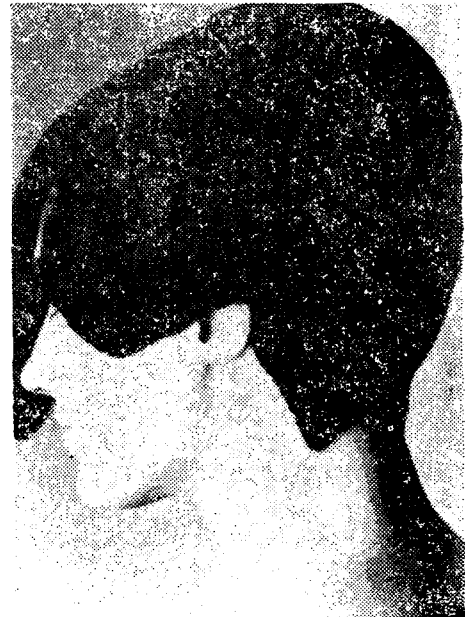
극도의 심미적 균형미와 우아미를 중시하는 파리의 패션계에서도 팝 아트의 파급과 더불어 London의 팝 패션이 인기를 뒤흔기 시작하였다. 미래 지향적



〔그림 11〕 Elvis Presley의 Mods Fashion.
〔Post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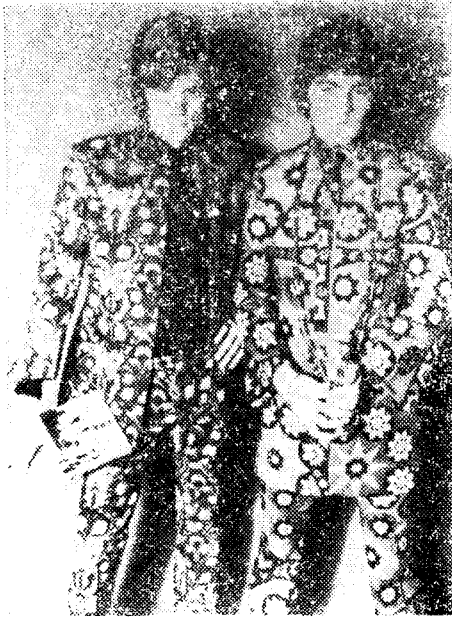


〔그림 12〕 The Beatles
〔Post Card〕



〔그림 13〕 Vidal Sassoon의 Hair Style
〔American Vogue 1965.10〕

이며 우주공간에 관심이 많은 André Courrèges, 충격적인 전위패션을 소개하는 Paco Rabanne, Mods 패션을 하이패션으로 소화시킨 Pierre Cardin, Louis Feraud, Yves Saint Laurent 등을 들 수 있으며, 미국의 디자이너로는 Bonnie Cashin, Gayle Kirkpatrick, Bill Blass, Rudi Gernreich 등을 꼽을 수 있다^{38~40}). 특히 Rabanne은 종래의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관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함께 충격적인 미를 전달하



[그림 14] Mike McGrath가 디자인 한 카프탄 슈츠
[Bernard의 Fashion]



[그림 16] Mike McGrath의 팜 무늬가 있는 남성구두
[Bernard의 Fashion]



[그림 17] Paco Rabanne의 Crazy Chain-Mail
[French Vogue 1968, 4]



[그림 15] Barbara Hulanicki의 비바 모티프
[Bernard의 Fashion]

기 위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옷이나 금속의 메달로 연결된 옷이나, 거대한 플라스틱 이어링 가짜 속눈썹과 가발 등을 애용하여 저속한 디자인을 애호하고 있다(그림 17, 18). 싸구려이며, 유치하며, 쉽게 소모할 수 있는 거대한 모양의 플라스틱, 비닐제품, 쇠붙이 등의

위조품, 모조품인 의복이나 장신구등은 확실히 세련된 미에 익숙한 기성인들에게는 기대치 못 하였던 문화충격(Culture shock)⁴¹⁾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미의 경험은 팝 아트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도시환경, 소비문화의 단면인 것이다.

2. 새로운 에로티즘(New Erotism)

Northrup⁴²⁾가 역설한 고대 중국의 Yin·Yang(음·양)설에 바탕을 둔 1950년대의 에로티즘이란 신체의 율곽선을 뒤틀 수 있는 한 X의 실루엣으로 들어내기 위하여 인위적인 브라자과 콜센으로 강조한 것이다. 즉



〔그림 18〕 플라스틱 이어링과 가짜 속눈썹, 가발
[American Vogue 1966, 6]



〔그림 19〕 Rudi Gernreich의 비키니 수영복
[American Vogue 1966, 12]

풍만한 가슴선과 가는 허리, 그리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힘으로 성숙한 여인의 미였다. 그러나 1960년대 복식의 에로티즘이란 새로운 젊음과 생동감으로 표출되었다. 신선하며, 젊음이 넘치는 신체 자체의 미를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정도가 에로티즘의 키포인트로 등장 하였다. 60년대 중반기 부터 복식 역사상 가장 짧은 스커트와 핫 팬츠는 여인의 늘씬한 자선미로 시선을 끌었고, 노-칼라와 길게 파인 넥라인은 자연스러운 유방에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이도 부족하여, Rudi Gernreich⁴³⁾은 'No-bra', 'Burn-the bra'로 인위적 통제에서 유방의 해방을 주장하였다(그림 19). 또한 1964년 Mary Quant⁴⁴⁾의 유희복은 가슴과 힙사이 즉 배꼽을 노출 시켰으며 1968년경 Courrèges의 환히 비치는 비닐 드레스로 노출된 신체의 윤곽선은 팝 패션에서 추구되었던 자연스러운 에로티즘이 있다(그림 20, 21). 이는 또한 1966년 콜렉션에서 팝아트에 심취하였던 Y.S.L.⁴⁵⁾에 의해 여체의 모티브와, Zandra Rhodes^{46, 47)}의 루즈와 여인의 입술 모티브의 프린팅으로 직선적인 복식의 에로티즘이 표현되었다(그림 22, 23). 또한 Y.S.L.는 'See-through'의 소재로 유방 노출미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그림 24). 이러한 인체의 노출 에로티즘은 이집트의 여왕 Nefertiti나 그의 남편 Akhnaton의 투명한 Gown에서 추



〔그림 20〕 André Courrèges의 힐스타 팬츠와 롱 이브닝 코트
[John French]⁵⁵⁾

구된 것이며 이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 조물주가 창조한 가장 신선한 미인지도 모른다. 1960년대 에로티즘이란 노출, 나체의 미, 브라자와 풀셀에서 해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 크레타문명 이래, 오래 간만의 유방은폐, 자선미의 은폐에 대한 도전으로



[그림 21] André Courrèges
[French Vogue 196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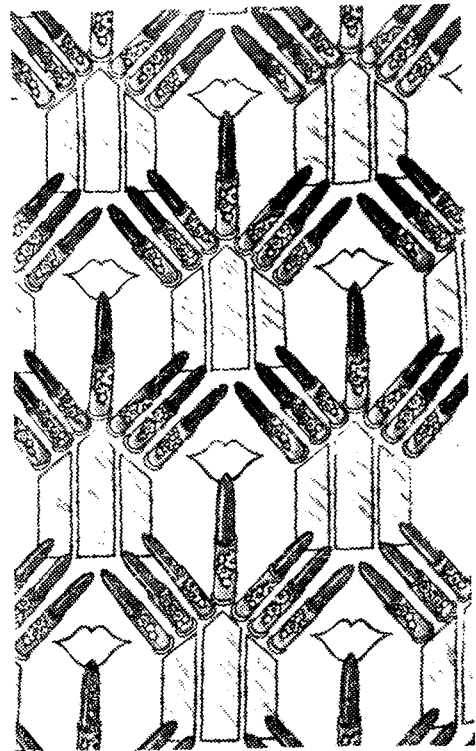
복식의 향겨 운동이라 할 수 있다.

3. 우주시대(Space Age)

1960년대란 과학문명 발달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최초로 인간이 달에 착륙하였으며, 컴퓨터의 발전, 칼라 TV의 보급, 점점마다 보유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 등은 도시 환경의 완성제로 팝 예술가들에게 애호받는 오브제로 등장하게 되었다(그림 1). 소설가는 공상과학소설에 열중하며, TV는 자동차의 경주내지는 공상과학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구상하였다. 파리의 Cardin, Ungaro, 그리고 Courrèges는 미래지향적 우주공간을 그들의 작품세계에 표출하였다^{48,49}. 저어지 계통의 단순한 기하학적 라인의 재단인 펜츠수우트와 달이나 해의 모티브가 프린트된 미니 드레스, 숭기라인의 트리밍 처리, 헬멧, 원 장갑, 원 부츠 등은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다(그림 25, 26, 27). 우주복 스타일의 펜츠 수우트는 여성에게 폭 넓은 활동량과 실용성을 제시하여 주기 때문에 여성의 캐주얼 웨어(Cas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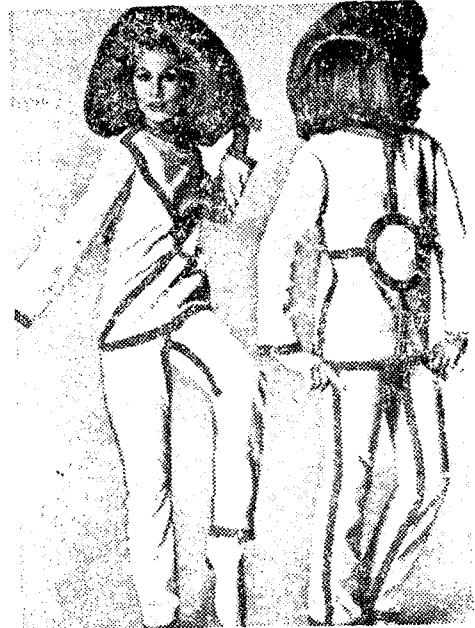
[그림 22] Y.S.L.의 Pop Art 드레스
[Yves Saint Laurent]



[그림 23] Zandra Rhodes의 팝 아트에 영향받은 옷감 무늬[Zandra Rhodes Art]



[그림 24] Y.S.L의 See-through 블라우스와 앙상블
[French Vogue 1968, 3]



[그림 26] Courrége의 우주복 팬츠
[American Vogue 1965, 8]



[그림 25] Pierre Cardin의 우주복 드레스
[French Vogue 196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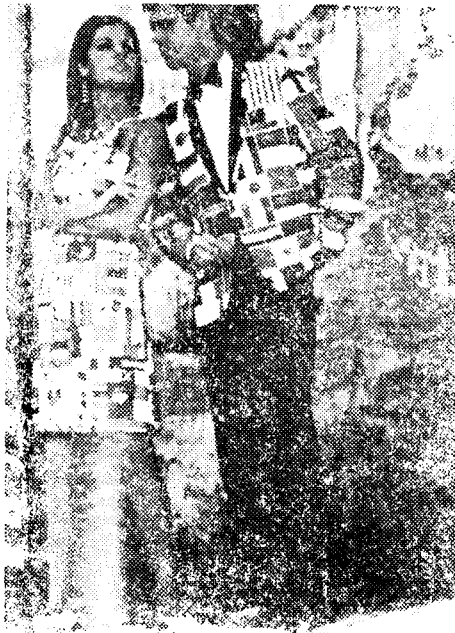


[그림 27] Y.S.L의 팝 아트에 영향받은 초생달과 등
근 보름달이 있는 칵테일 드레스
[Y.S.L]

Wear)로 입게 되었으며 이는 더욱 과학시대의 가속화
를 가져 온 것이다.

4. 콜라쥬(Collage)와 낙서기법(Graffiti)

콜라쥬란 이미 입체파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예술



[그림 28] 팝 아트에 애용되었던 미국 성조기 무늬
[American Vogue 1967, 3]

의 표현 방법으로 Hamilton, Wahoo 등 팝 화가들이 소비문화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오브제를 오려 붙이는 데 기인한다. 팝 화가의 거장 Wahoo는 Vogue 잡지(1977)에 Elizabeth 여왕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콜라주를 사용하였고 1960년대와 70년대 많은 활약을 하였던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인 Antonio도 콜라주의 기법을 그의 그림에 애용하였다⁵⁰⁾. 또한 John Wesley나 Jasper Jones가 즐겨 택한 민족적 의미의 미국성조기(그림 7)는 콜라주와 비슷한 기법인 패치워크(patch work)나 프린팅으로 1960년대 말 유행 되었던 직물무늬이기도 하다(그림 28)

Carter⁵¹⁾는 예술사조와 패션의 章에서, 1960년대 팝 아트의 오브제, 즉 인기 영화배우(그림 6)나 팝 송 가수의 얼굴, 미키 마우스와 같은 인기만화 그림, 또는 문자나 낙서 등이 T-셔츠나 의복의 장식으로서 선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 낙서나 글자 등을 사용하는 팝아트의 그라피토는 1960년대 Hockney나 Kitaj 등이 즐겨 그들의 회화에 사용 하였으며, 1960년대 T-셔츠나 의복의 무늬로 도입된 이래 1980년대는 패션의 한 테마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 문화의 대변 화가인 Keith Haring⁵²⁾은 그라피토 화가로 많은 지하철 내부 장식을 그렸고 그의 그림은 T-셔츠나 진까지에도 도입되었다(그림 29, 30). 이 그라피토 무늬

에 심취하여 있는 세계적 디자이너는 Elizabeth De Senneville, Stephen Sprouse, Castelbajac, Katharine Hamnett 을 들 수 있다(그림 31, 32, 33, 34).

Hamnett의 메세지 T-셔츠의 문귀는 주로 환경오염 전쟁, 공포, 기아, 갈등 등 사회비평인 슬로우건(Slogan)⁵³⁾으로서 도시환경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데, 이 팝 아트의 사회비평으로서 역할은 James Rosenquist⁵⁴⁾의 「F-111」에서도 절실히 표현 되어 있다. 즉 극도로 발달된 소비문화와 과학문명, 핵폭탄으로 인한 전쟁과 대량 학살,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고발인 것이다. 원래 팝 아트는 소비문화, 도시환경, 기술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애호에서 창조되었으나, 이의 만용과 오염은 사회비평의 역할로 중을 내리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림 29] Keith Haring의 그라피토 예술
[Sunday Times Magazine, 1983, 10]



[그림 30] Keith Haring의 그라피토 무늬가 있는 T-셔츠
[Elle, 1985, 3]



[그림 31] Elizabeth De Senneville 의 그라피토 무늬가 있는 드레스
[Post Card, Musee De La Mode Et Du Costume]



[그림 33] Castelbajac 의 그라피토 Robe
[Elle, 1985, 3]



[그림 32] Stephen Sprouse 의 그라피토 드레스
[American Vogue 1985, 1]



[그림 34] Katharine Hamnett 의 메세지 T-셔츠
[Sunday Times Magazine, 1984, 1]

IV. 결 어

물이 지붕에서 흐르듯이, 한 시대의 예술가들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갖고 그들의 창조 작품에서 공통의 신념, 정서, 가치, 내지는 미적 승화로서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다. 팝 아트는 소비문화를 사랑하고 도시와 기술의 문화를 애호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쉽게 취득하고 소모할 수 있는 인스턴트문화, 계층이 없는 대중문화

2, 대량생산의 문화, 깊고 심오한 철학보다는 쉽게 잊고 있어버릴 수 있는 유포와 재치, 그리고 심미안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숙된 성인의 문화보다는 새로운 파격적인 경험을 통하여 생동감을 강조하는 청소년 문화, 그러기에 더욱 섹스와 매력을 증시하는 새로운 키토리즘의 탄생 문화,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와 우주 과학시대, 이 모든 것이 도시 환경의 매력이며, 현대 생활의 근원인 것이다. 팝 아트는 이 모든 도시 환경의 매력을 발휘하였으며, 1960년대 팝 패션은 이 모든 현대 생활의 정서와 가치를 반영하였다. Mary Quant는 미니 스커트로 늘씬한 여인의 자선미를, Courrège는 힐스터 펜츠로 중태의 복식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배꼽을, Y.S.L.은 비치는 (see-through) 블라우스로 유방과 젊음을 개방하며, 새로운 에로티즘을 탄생시키고 있다. 팝 아트가 심미적 균형미를 증시하는 중태의 순수 예술에 대한 도전이며 반항이었다면, 팝 패션 또한 우아미와 세련미를 증시하는 복식에서의 혁명인 것이다.

그라피토 팝 아트와 복식은 현대인의 낙서장으로 극도로 만연된 환경오염, 고도로 발달된 핵무기로 인한 전쟁, 대량학살, 인간성의 말살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다. 이는 팝 아트나 팝 패션이 현대생활의 이기를 사랑하고 도시문화를 우상화 하는데서 시작 되었으나 이의 만용과 오염은 사회 비평의 역할로 종을 내리게 된 공통점이라 하겠다.

결론지어, 한 시대의 복식을 이해함에 있어 예술이 없어서는 아니되며, 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적 물(物)로 패션을 빼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1950년대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청소년 하위 문화권을 이루는 모드(Mods), 그리고 이의 후계자인 히피(Hippies), 스킨헤드(Skinheads), 그리고 펑크(Punks)의 의미를 더욱 세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라피토 팝패션의 진정한 의미와 모티브를 세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參 考 獻 文

- 1) Packer, William, Fashion Drawing in Vogu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3)
- 2) Contini, M. 5000 Years of Fashion, Milan: Arnoldo Mondadori, (1977)
- 3) Ginsburg, Madeleine. Fashion 1900~1939, A Scottish Arts Council Exhibition Reports with the support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76)
- 4) Farrell-Beck, Jane A. and Petsch, J.V., Colors Compared: Matisse and Picasso with Chanel and Vionnet, *Americ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206-214, (1984)
- 5) 정홍숙, Art Nouveau 樣式이 現代衣裝에 미친 영향 「복식」 第4號, (1981)
- 6) 85년 추동 패션 방향, 월간 「멋」, 5, 201-204, (1985)
- 7) Compton, N.H. and Hall, O.A., Foundations of Home Economics Research, Burgess Publishing Company, 61-94, (1972)
- 8) Gardner, Helen, Art through the Ages, revised by Horst de la Croix and Richard G. Tanse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871, (1980)
- 9) Lippard, L.R., Pop, London: Thames and Hudson, 79, (1982)
- 10) 루시 R. 리파트, 팝 아트, (전경희역), 미진사, 104, (1985)
- 11) 존 카나디이, 미술이란 무엇인가?, (김 영나역), 덕성여자대학 출판부, 366, (1982)
- 12) Wilson, Simon, Pop, London: Thames and Hudson, 5-7, (1974)
- 13) 존 카나, 디이, *op. cit.*, 373
- 14) Wilson, Simon, *op. cit.*, 5-7
- 15) Gardner, Helen *op. cit.*, 871-872
- 16) *Ibid.*, 872
- 17) Wilson, Simon, *op. cit.*, 31-38
- 18) 존 카나디이, *op. cit.*, 374.
- 19) Lippard, L.R., *op. cit.*, 40
- 20) *Ibid.*, 53
- 21) Wilson, Simon *op. cit.*, 49-50
- 22) Lippard, L.R., *op. cit.*, 62-63
- 23) *Ibid.*, 64-65
- 24) 존 카나디이, *op. cit.*, 374
- 25) Lippard, L.R., *op. cit.*, 78
- 26) Wilson, Simon, *op. cit.*, 13-18
- 27) 루시 R. 리파트, *op. cit.*, 132
- 28) Lippard, L.R., *op. cit.*, 111-112
- 29) Wilson, Simon, *op. cit.*, 34
- 30) *Ibid.*, 37-42
- 31) Laver, James,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261, (1969)
- 32) Carter, Ernestine,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New York: G.P. Putnam's Sons, 95

- 100, (1977)
- 33) "Mary Quant's London" London Museum, 29 November 1973-30 June 1974, *Catalogue*, Introduction by Ernestine Carter, 10, (1973)
- 34)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ed. by William Morri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843, (1976)
- 35) *Mods, Reports* Compiled by Richard Barnes, London: EEL PIE Publishing, (1979)
- 36) Bernard, Barbara., *Fashion in The 60's*, London: Academy Editions, (1978)
- 37) Greenwood, K.M. and Murphy, M.F.,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New York: Mac Millan Publishing Co., Inc., 40~51, (1978)
- 38) Laver, James, *op. cit.*, 258~268
- 39) Carter, Ernestine, *op. cit.*, 95~100, 104~117
- 40) Bond, David,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Guinness Superlatives Limited, 163~219, (1981)
- 41) Toffler, Alvin, *Future Shock*, Random House Inc., (1970) *Culture Shock* 은 Alvin Toffler 가 처음 사용하였다.
- 42) McJimsey, H.T., *Art in Clothing Selection*, Harper& Row, Publishers, 64~115, (1963)
- 43) Laver, James, *op. cit.*, 264
- 44) Garland, Madge,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Praeger Publishers, 30~39, (1970)
- 45) Yves Saint Lauren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London: Thames and Hudson, (1984) 1983년 12월 14일에서 1984년 9월 2일까지 Metropolitan Museum 에서 Y.S.L 작품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다.
- 46) Rhodes, Zandra and Knight, Anne, *The Art of Zandra Rhodes*, Jonathan Cape, (1984) 1984년 11월 27일 London 의 Queen Elizabeth Hall 에서 Zandra Rhodes 은 그녀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 47) Around Lead to Zandra, reported by Georgina Howell, *The Sunday Times Magazine*, Nov. 18, (1984)
- 48) Mendes, V.D., *20th Century-An Introduction To Women's Fashionable Dress 1900 To 1980*, *Reports* Victoria & Albert Museum, 1~2, (1981)
- 49) Ginsburg, M., Hart, A. and Mendes, V.D.,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1984) Victoria and Albert Museum 에서는 17세기부터 1980년대까지 남녀의상 195점과 기타 악세사리에 대하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 50) Packer, W., *op. cit.*, 30~31
- 51) Carter Ernestine, *op. cit.*, 104~117
- 52) *Week in View*, reported by James Danziger, *Sunday Times Magazine*, 89~91, (1983) Keith Haring 의 작품전이 Robert Fraser Gallery 에서 1983년 11월에 있었다.
- 53) Ribeiro, Aileen, *If the Slogan fits, Wear It*, *The Times*, 11, August 14, (1984)
- 54) Lippard, L.R., *op. cit.*, 118~119
- 55) *John French Fashion Photographer*, Published by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84) John French 는 1950년대와 1960년대 Harper's-Bazaar, the Daily Mail, the Daily Mirror, The Sunday Times 등에서 패션사진작가로 활약하였으며 1984, 11, 14~1985, 3, 10까지 그의 회고전이 있었다.